

##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과 계급 문제에 대한 현시대적 함의\*

### — 부산과 창춘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전국조\*\*

#### 【목 차】

1. 들어가며: 'gentrification', '등지 내몰림', 'embourgeoisement', '紳士化(신사화)'
2. 'gentrification'을 둘러싼 몇 가지 어긋남
3. 젠트리피케이션의 변증법
  - 1) 젠트리피케이션: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의 과정이자 효과
  - 2) 젠트리피케이션의 변증법: 스펙터클 도시, 인지자본주의, 예술인간
4. 한국과 중국의 젠트리피케이션: 부산과 창춘의 사례
  - 1) 부산: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 2) 창춘: 무단거리(牧丹胡同: Mudan Street)
5. 나가며: '문화자본의 벡터'와 '도시 공동체로서 창조적 장소 만들기'

#### 【초록】

이 작업의 주된 목적은 문화예술 기반의 도시재생과 계급 문제에 대한 현시대적 함의를 부산과 창춘의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하려는 데 있다. 실지로 문화예술 기반의 도시재생이란 역사사회적 맥락에서 문화예술의 상상력 및 실천력과 철학의 비판력을 절합하는 대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대화를 통해 서로는 한층 더 풍요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2043693). 아울러 이 논문은 2020년 9월 25-26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6회 한·중인문학 포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HK연구교수 (gukjojeon@daum.net)

위질 수 있고, 그 풍요로움을 통해 ‘도시 공동체로서 창조적 장소 만들기’라는 현시대의 사회적 의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극복하는 추동력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갈 때 현시대 문화실천가는 비로소 도시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연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모두는 시민 자신의 힘으로 더 정의로운 도시를 가꿔나갈 수 있는 토대로 작동하게 된다. ‘또따또가’와 ‘무단거리’의 두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 작업에서 해왔던 논의 모두는 바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된다.

【키워드】 젠트리피케이션,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 또따또가, 무단거리, 문화자본의 벡터, 창조적 장소 만들기

## 1. 들어가며: ‘gentrification’, ‘등지 내몰림’, ‘embourgeoisement’, ‘紳士化(신사화)’

먼저 기억의 단편 몇 개를 모아 보는 일로 시작해 볼까 한다. 이 일은 중요하다. 최근 몇 년 간 내가 이 작업과 관련해서 갖게 된 문제의식과 그것의 발전 과정을 드러내기에 그만큼 적합한 것도 없을 듯하기 때문이다. 기억의 중심에는 2015년 전후로 해서 막 시작했던 일이 있다. 2000년대 초반 영국에서 출간된 르페브르(Henri Lefebvre) 개론서의 번역이었다. 그 즈음 ‘gentrification’을 비판적으로 다룬 TV 프로그램을 봤다.<sup>1)</sup> ‘gentrification’이란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얘기가 심지어 TV로도 마구 쏟아져 나올 때였다. 그것의 심각성을 알아 가는 이가 굳이 문화—공간—도시—지역 같은 것을 한데 엮어 공부하고 있던 나 같은 문화연구자일 필요조차 없을 때였다.<sup>2)</sup> 그러다가 ‘gentrification’이 ‘등지 내몰림’으로 번역,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된다.<sup>3)</sup> 문득 의문이 든다. “gentry”는 어디 갔지? 국어순화도 좋지만 번역을 하면서

1) 정확히 알아보니 2015년 7월 8일에 방영된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 60분』의 「문화 증발, 사막이 된 도시」였다. 이선영, 「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인가?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논의의 유행에 대한 진단과 전망」, 『예술가,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재생』, 제7회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서울문화재단, 2015.11, p.37, 주1). 김명석, 「‘추적 60분’ 신춘·대학로·홍대, 문화 없어지고 돈만 남았다」, 『TV리포트』, <https://www.tvreport.co.kr/743511> [2020.07.27].

2) 다음의 표는 2004년부터 10여 년 동안의 ‘gentrification’ 관련 보도 건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2년간의 증가폭만 강조해 두고, 더 자세한 설명은 III장에서 하도록 한다.

<표1> ‘gentrification’ 보도 건수 변화. 이선영, 앞의 글, p.37 — 강조 글쓴이.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수	2	0	1	1	1	0	1	6	16	20	45	203

이렇게 계급 자체를 삭제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번역으로 한창 바빠지면서 그 의문은 잠시 접힌다. 그러던 어느 날, 번역 작업에 허덕이면서 르페브르 저서를 이것저것 막 뒤지고 있는데, 한 순간 “gentrification (“embourgeoisement”)”이란 글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닌가?<sup>4)</sup> 타당한 번역이라는 생각과 함께 갖게 된 내 나름의 확신, “둥지 내몰림’을 봤을 때 들었던 의문이 아예 텅없는 건 아니었구나!’ 그러다가 이번 작업을 하는 동안 중국어 대역어까지 확인하게 된다. ‘紳士化’였다. 처음에 품게 됐던 의문은 폴리긴커닝 한층 더 커져 지금까지 오고야 말았다. 그렇기에 이 작업은 이 의문을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의 맥락에서 풀고, 그 맥락의 현실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문화정치적 동학(動學)을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탐구하고 규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 2. ‘gentrification’을 둘러싼 몇 가지 어긋남

여기서 ‘어긋남’은 작게는 언어 간, 크게는 언어와 현실 간의 괴리를 포함한다. 핵심이 되는 주장은 이렇다. “언어 또한 투쟁의 장이다.”<sup>5)</sup> 이를 논증하려면 ‘gentrification’의 사전적 정의 및 그것의 한국어·중국어 대역어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6)</sup>

<표2> ‘gentrification’의 사전적 정의

사전		뜻
영영중	1	the process by which a place, especially part of a city, changes from being a poor area to a richer one, where people from a higher social class live <sup>7)</sup> 장소, 특별히 도시의 일부가 가난한 지역에서 더 부유한 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으로서 그곳에는 더 높은 사회 계급 출신의 사람들이 산다. (地區的) 貴族化 ... [(지구의) 귀족화]
영영	1	the process by which a poor neighborhood in a city is changed by people who h

3) 조사해 보니 2016년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언급돼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 또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한다.

4) Smith, N. “Foreword”, *The Urban Revolution* (Lefebvre, Henri.) Robert Bononno (t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London, 2003, pp.xx-xxi. 다음은 이 글귀가 포함된 대목이다. “르페브르는 도시의 gentrification(“embourgeoisement”)을 언급했지만 그 과정 또한 1960년대 이후로는 급격하게 변화해 왔다. ... 1980년대 이후로 gentrification은 전 지구적 도시 팽창 전략의 하나로 점점 더 일반화돼 왔다.” 지금 적용해도 타당한 주장이다.

5) Nhalevilo, Emilia A. “Language is also a place of struggle”, *Cultural Studies of Science Education* 6(2), 2011, p.441.

6) <표2>를 위해 참조한 사전의 세부 정보는 <참고문헌>을 볼 것 — [ ] 글쓴이.

		ave money, including esp. the improvement or replacement of buildings Note: This word is now sometimes used in a disapproving way, but was originally considered positive.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내 빈곤 구역을 바꾸는 과정으로서 특별히 건물의 개량과 교체를 포함한다. *주의: 이 단어가 요즘 가끔은 탐탁잖아 하는 방식으로 쓰이지만 원래는 긍정적으로 여겨졌다. <sup>8)</sup>
	2	PROPERTY the process by which an area is changed by people who have more money moving to live there and making improvements to the buildings <부동산>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특정 구역으로 이사를 하고 그곳의 건물을 개량함으로써 그곳을 바꾸는 과정이다.
영한	1	(주택가의) 고급 주택화
	2	(도시 빈민가 따위의) 고급화
	3	(주택가의) 고급 주택화
영중	1	士紳化 [신사화], 移居開發 [거주지를 옮김으로써 이뤄지는 개발]

<표2>를 통해서 우선 확인 가능한 것은 ‘gentrification’이란 것이 ‘현시대의 도시적 현상’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엔 강력한 ‘계급적 함의’가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중국어 대역어에선 그 함의가 잘 드러나는 반면,<sup>9)</sup> 한국어 대역어에선 그렇지 않다는 데, 게다가 ‘등지 내몰림’이란 대역어가 등장하면서 그 함의가 한층 더 퇴색해 버려 그

7)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 Thesaurus의 정의와 동일하다.

8) “gentrification”이 원래는 긍정적 의미로 여겨졌다’는 것에 대한 설명은 이 작업의 주된 주제가기도 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맥락에서 가능하다. 실지로 ‘도시재생’이란 말은 서구의 ‘도시 쇠퇴(urban decline)’에서 비롯하는 인구감소나 도시 노후화 같은 여러 문제의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생겨났다. 중요한 것은 그 배경, 바로 “도시의 쇠퇴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문제를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조명래, 『사람 중심 도시와 도시재생』, 『문화재생 포럼: 호시탐탐(好市耽耽)』, 경기문화재단, 2016, p.14. 효과보다는 당위에서 ‘도시재생’과 ‘gentrification’의 긍정적 함의를 읽어냈던 것은 아닌가 싶다.

9) 중국어 대역어엔 비단 ‘사신화(士紳化)’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것과 함께 ‘신사화(紳仕化)’, 사신화(仕紳化), ‘진신화(縉紳化)’도 있고 ‘중산계층화(中產階層化)’도 있다. 특별히 ‘도시’라는 현시대의 사회공간적 의미를 덧붙여 ‘성시사신화(城市士紳化)’, ‘성시사신화(城市仕紳化)’, ‘성시신사화(城市紳士化)’, ‘도시진신화(都市縉紳化)’도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서도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음의 표는 꽤 흥미로워 보인다.

<표3> 지역에 따른 ‘gentrification’ 대역어 및 사용 빈도

어휘	중국	싱가포르	어휘	대만	홍콩
中产阶层化	115	0	中產階層化	1	2
仕紳化	21	0	仕紳化	215	2
士紳化	924	0	士紳化	60	22
紳仕化	0	0	紳仕化	4	0
紳士化	2420	2	紳士化	73	18
縉紳化	34	0	縉紳化	92	7

※ 구글 검색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출처: 「Talk: 士紳化」, 『維基百科』, <https://zh.wikipedia.org/wiki/Talk:士紳化> [2020.07.27].

자취조차 사라져 버리다시피 했다는 데 있다.

2016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립국어원에선 「뜨는 동네 주민 떠나게 하는 ‘동지 내몰림’ —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그 과정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소한 외래어를 골라 그것을 “갈음할 우리말을 공모”한다(2015.12.08-2016.01.08). 그런 다음 ‘말다듬기위원회’에선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기준으로 논의”하여 그것을 대신할 말을 선정하고, 끝으로 “국민 의견 수렴 과정”까지 거쳐 “다듬은 말을 발표”하게 된다. 그래서 나온 말이 ‘동지 내몰림’이며, 제시된 예문은 이런 것이다. “상권이 발달하면 기존 상인들은 밀려나는 국내 상업 지구의 동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sup>10)</sup> 이로써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언어는 가급적 최대한 현실을 반영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현실에선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할 뿐이다. 게다가 그렇게 멀어지는 만큼 투쟁의 장이 되긴커녕 투쟁의 장에서도 점점 더 밀려나기만 할 뿐이다.’<sup>11)</sup>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지금부터 ‘gentrification’을 본격적인 투쟁의 장으로 삼아 볼 텐데, 그전에 ‘gentry’를 한 번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영국에서 ‘gentry’는 특정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윌리엄스는 ‘목가와 반(反)목가’ 또는 ‘시골과 도시’의 맥락에서 17세기 전반의 시 몇 편을 해석하면서 ‘gentry’를 등장시킨다. 그러고 나서는 “오만, 탐욕, 이해타산은 도시 상인이나 궁정인들뿐 아니라, 시골의 토지소유자들에게도 만연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sup>12)</sup> ‘gentry’ 또한 당시 시골의 토지소유자였는데, 이를 ‘향신(鄉紳)’으로 번역하면서 『시골과 도시』의 번역자인 이현석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역주) gentry: 넓은 의미로는 귀족을 포함한 명문가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신분적으로 귀족과 자영농민(yeoman) 사이에 위치한 계층을 의미한다. 시골에 넓은 영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임차 농장의 형태로 운영하는 까닭에 직접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원래는 토착 지주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10) 김형배, 「뜨는 동네 주민 떠나게 하는 ‘동지 내몰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https://www.korean.go.kr/front/board/boardStandardView.do;front=824E3EDC7514935BCA6\\_B992C31B95508?board\\_id=6&mn\\_id=19&b\\_seq=584&pageIndex=9](https://www.korean.go.kr/front/board/boardStandardView.do;front=824E3EDC7514935BCA6_B992C31B95508?board_id=6&mn_id=19&b_seq=584&pageIndex=9) [2020.07.26].

11) 이 과정은 ‘국어’라는 장(場)에서 벌어지는 각축에도 별 무리 없이 적용해 볼 수 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간의 경합 말이다. 다시 말해서, ‘동지 내몰림’은 외래어 ‘gentrification’을 두고 ‘대역어를 선정해야만 한다’는 기존의 강박을 유지함과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자(어)’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고유어’만 지나치게 고집한 결과로 생산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 효과는 ‘계급적 함의’와 ‘계급투쟁의 역사적 함의’의 삭제 또는 은폐가 될 것이다.

12) Williams, Raymond. *The Country and the City*, New York: OUP, 1973, pp.26-28; 레이먼드 윌리엄스, 『시골과 도시』, 이현석 옮김, 나남, 2013, pp.66-70.

도시에서 부를 축적하여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도 포함하게 되었다. “향신”(鄉紳)이나 “향반”(鄉班)으로 옮기기도 하고 원어 그대로 “젠트리”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향신”으로 옮긴다.<sup>13)</sup>

하지만 아직은 뭔가가 부족해 보인다. ‘gentrification’을 ‘신사화(紳士化)’로 볼 때, ‘紳’은 설명이 됐는데, ‘士’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은 『시골과 도시』의 역주를 한 번 더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squire’의 번역어, ‘향사(鄉士)’의 설명이다.

(역주) squire: 향신(gentry) 가문의 남자 가장을 지칭. 향신 가문은 대대로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명망성이 높은 토지소유자(landowner)를 지칭한다.<sup>14)</sup>

상기의 두 설명을 종합해 보면 당시의 ‘紳士’는 시골에선 넓은 영지를 소유하고 그렇게 축적된 부를 통해 차츰 도시에서도 토지를 매입했던 계급이다. 그럼 중국에선 어땠을까?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보면 상황은 거의 비슷해 보인다.

紳士 shēn shì

舊時在地方上有財有勢或得過一官半職的人，以地主和退職官僚居多

<詳細解釋>

舊稱地方上有勢力有地位的人。一般是地主或退職官僚。

신사 [발음: shēn shì]

옛날에 지방에서 부와 권력을 지니고 있거나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지주와 퇴직 관료가 신사의 다수를 차지한다.

<상세해석>

예전에는 지방에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을 가리켰다. 보통은 지주나 퇴직 관료였다.<sup>15)</sup>

이렇게 볼 때, 영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신사’란 계급이 유한계급(有閑階級) 또는 불로계급(不勞階級)이었다는 점, 또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의 한 주체인 ‘임대인’과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점은 자명하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땅에 더해 건물까지 갖고 있다는 정도일까, 불로소득을 기반으로 한 유한계급이란 근본적 특징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sup>16)</sup> 더군다나 현대 ‘임차인’이 과거 정치사회적 의무를

13) 윌리엄스, 같은 책, pp.66-67, 주)68.

14) 같은 책, p.136, 주)7.

15) ‘紳士’, 『國學大師』, <http://www.guoxuedashi.com/hydc/372117j.html> [2020.10.24]. 사이트상의 간화자는 번체자로 바꿨다.

16) 참고로 ‘신사’라는 말은 한국에선 1900년대 초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뜻은 “사람됨이나

부담하고 있던 ‘소규모 자작농’과 별 다를 바 없고<sup>17)</sup> 현재 임차인이 쫓겨나는 모양새 또한 당시 소규모 자작농의 그것과 별 다를 바 없다면,<sup>18)</sup> 다음의 잠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시대의 ‘gentrification’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지대를 토대로 자신의 자본축적을 점점 더 가속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런 까닭에 현시대 특유의 ‘도시적 인클로저가 팽배’하는 데도 크나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실지로 상당히 신자유주의적이기도 한 것이다.<sup>19)</sup> 이런 마당에 ‘gentrification’을 단지 국어순화의 명분에 따라 ‘등지 내몰림’으로 번역하고 말았다는 것은 여전히 큰 불편함을 초래한다.<sup>20)</sup> 그것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작게는 언어의 간극, 크게는 현실과 언어의 간극에 자리 잡고 있는 계급적 함의의 삭제에서 비롯한다. 이 둘의 공

품가집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 남자. 보통의 남자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이다. 박재연·이현희 외, 『고어대사전』, 권12,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학교방, 2016, p.931. 따라서 현시대 중국 사회의 맥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문명화된 도시 곧 ‘문명도시건설(文明城市建設)’이라고 할 때 문명도시(문화도시)의 남성이 되기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문명도시건설’은 ‘현시대 세계 정치의 패자(霸者)를 향한 중국의 꿈[中國夢]이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슬로건 중 하나로 중국 현지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신사-문화도시-남성’이 ‘gentrification’ 및 ‘젠더’ 관련 논의로도 이어질 순 있겠지만, 이 작업의 맥락과는 꽤 동떨어져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선 따로 얘길 덧붙이지 않도록 한다.

- 17) “(역주) peasantry: 대개 독립적인 소농과, 영주 소유의 땅을 관습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보유하고 경작하는 소작농(관습보유농, *customary holder*) 등을 느슨하게 포괄하는 명칭인데, 저자는 이를 “사회적, 정치적 의무를 지고 있는 소규모 자작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스, 앞의 책, p.131, 주1).
- 18) “고전적 의미의 농민, 즉 사회적·정치적 의무를 지고 있는 소규모 자작농(the peasantry) 대부분은 거대한 규모의 사유지가 건설되던 시기인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 강압에 의해서 토지를 팔고 추방당했다.” Williams, *op cit.* p.97; 윌리엄스, 앞의 책, p.201.
- 19) Hodkinson, Stuart. “The new urban enclosures”, *City: analysis of urban trends, culture, theory, policy, action* 16(5), 2012, p.500. 김용창, 「도시 인클로저와 거주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공간학회·서울연구원, 2016.06, pp.115-116. 이것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정의가 통용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 말은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라스(Ruth Glass)가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살펴본 캠브리지 사전의 정의와 크게 다르진 않은 듯 보인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연진, 『문화·예술 분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기본연구 2016-20), 2016, p.iv, pp.11-12. 김연진,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환경논총』, 제61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8.03, p.12. Hamnett, Chris. “Gentrification: its history, forms, causes and consequences”, *Artist, Gentrification and Urban Regeneration*, The 7<sup>th</sup> Seoul Art Space International Symposium,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5.11. p.8, p.20을 볼 것.
- 20) 이미 한참 전에 “젠트리피케이션은 고급주택화 또는 도시재활성화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나, 이들 번역어가 gentrification(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도심 낙후지역이 중산층 주거지역으로 변모하는 현상)이라는 단어가 지닌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의문이다.”는 지적이 이미 나온 바 있다. Widodo, Johannes. “Gentrification, Conservation, and Regeneration: Lessons from Urban Conservation Cases in Asia”, *The 20<sup>th</sup> Century Urban Cultural heritage in Our Daily Life*, UNESCO Asia-Pacific International Forum on the Preservation of Urban Cultural Heritag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0.11, p.105, note 5. 이런 상황에서 ‘국립국어원의 의견 수렴 절차라는 것이 혹시 형식에 그치고 만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꽤 합당해 보이지 않을까?

통된 원인은 이 작업의 일차적 분석 및 설명 대상이 되고 있는 말, ‘gentrification’의 역사사회적 맥락을 가볍게 봤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결코 빼놓아선 안 될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그중에서도 특별히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이다.<sup>21)</sup>

### 3. 젠트리피케이션의 변증법

#### 1) 젠트리피케이션: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의 과정이자 효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신자유주의적 도시 공간 재편의 핵심 전술이라는 점, 그렇기에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sup>22)</sup> 전 지구화로 대변되는 현시대에 도시성장과 전통적 의미의 산업발전은 더 이상 동태를 돌지 않는다. 산업기반은 도시에서 이탈했고, 도시 공동화는 현실이 된다. 도시의 생존은 전적으로 새로운 돌파구의 모색·준비·실현에 의존하기에 이른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문화다. 예술을 포함한 문화 전반이 도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도시재생’은 이 같은 도시의 변모 과정 및 그 효과의 별칭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로 지금껏 드러난 것은 도시의 공장화와 문화의 제품화, 한 술 더 뜬 도시의 시장화와 문화의 상품화다. 인류의 역사를 얘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것 둘, 바로 도시와 문화다. 인류 문명이 만개한 곳, 때로는 혁명의 전장이 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던 곳, 그래서 수많은 얘기를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곳, 그 도시는 이렇게 몰락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물질문명은 물론 그것을 토대로 이룩해 온 정신문명까지 함께 일컬었던 문화는 또 이렇게 전락했다. 하지만 현시대에 이르러 문화는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적극 재고되고 있고, 도시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은 미증유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의 확산과 도시 관광의 문화적 형식 개발”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격랑이 되어 우리 도시거주자를 덮쳐 오고 있으며, 이를 추동하

21) 이로써 ‘gentrification’은 한층 더 강력한 투쟁의 장을 형성하게 되며, 그 결과 한국 언론의 역사사회적 의식을 도외시한 번역어 ‘둥지 내몰림’은 점점 더 자취를 감추게 되고, 부족하지만 그것의 영어 독음을 그대로 갖고 온 ‘젠트리피케이션’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듯 보인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는 ‘gentrification’ 대신 ‘젠트리피케이션’을 쓰도록 한다.

22) 한 가지만 환기하자면,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곧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의 경제적·정치적 부활”이며,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경쟁”이 된다. Meagher, Sharon M. “How Might Creative Placemaking Lead to More Just Cities?”, *The Routledge Handbook of Philosophy of the City*, S. M. Meagher, S. Noll, and J. S. Biehl (e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20, p.173.



는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문화의 상품화와 문화 자본주의의 확산”이다.<sup>23)</sup>

이런 상황에서 예술가의 역사사회적 입지 또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천재’ 예술가, 낭만주의적 예술가상에 입각한 예술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리할 수도 없다. 이른바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ake)’이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 또한 역사사회적 생산물이란 얘기가 나온 지도 꽤 오래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견된, 예술가의 새로운 자리, 바로 “기발한 창조자와 창조적 촉진자 사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예술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도시의 “재(심)미화(re-aestheticisation)”에 문화가 적극 사용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터전이 삶과 일 양 측면 모두에서 “매력적인 장소”가 돼 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가 자신의 작업에서 “공동체와 장소”는 그 자체로 난제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예술가란 사회적 존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한층 더 심각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sup>24)</sup> 이 같은 상황은 다시 두 가지 문제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하나는 문화예술 실천가가 젠트리피케이션과 강제퇴거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물론 그것의 강화에 복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신자유주의적 실용성 증대를 위한 상품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가능성 또한 발생한다는 것이다.<sup>25)</sup>

## 2) 젠트리피케이션의 변증법: 스펙터클 도시, 인지자본주의, 예술인간

논의의 진행을 위해 우선 ‘스펙터클’의 변증법적 동학을 통해 그것의 벡터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 스펙터클은 ‘지배경제의 이미지’다. 그렇기에 그것에는 근본적으로 도착(倒錯)을 통한 이상증식의 운동성이 내재한다. 마치 건강한 이웃 세포를 닥치는 대로 파괴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무한히 확장해 가는 암세포처럼 말이다. 반면, 그것에는 포획·집적·집중을 통한 축적의 운동성 또한 내재한다. 부단한 확산이라는 한쪽의 변위와 부절(不絶)한 수렴이라는 다른 한쪽의 변위가 형성하는 벡터가 바로 스펙터클인 것이다.<sup>26)</sup> 이런 의미에서 현시대 도시는 그 자체로 스펙터클이며, 그렇기에

23) Yudice, George. *The Expediency of Culture: Uses of Culture in the Global Er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3 — Miles, Steven. & Paddison, Ronan. “Introduction: The Rise and Rise of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Urban Studies* 42(5/6), 2005, p.834에서 재인용.

24) Sharp, Joanne. Pollock, Venda. & Paddison, Ronan. “Just Art for a Just City: Public Art and Social Inclusion in Urban Regeneration”, *Urban Studies*, 42(5/6), 2005, p.1014.

25) Meagher, *op cit.* p.173.

26) 박시정, 「인체 암세포가 건강한 이웃 세포 파괴하는 세포 경쟁 메커니즘 발견」, 『트리니티 메디컬 뉴스』, <http://www.mdtrinity.com/news/view.php?idx=3236> [2020.07.31]. 조정환, 「예술인간의 탄생과 반자본주의적 공동도시의 전망」,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심포지엄 자료집』, 한

그것은 ‘스펙터클 도시’로 불리기에 별 손색이 없다. 그리고 이 스펙터클 도시를 무대로 인지자본주의<sup>27)</sup>는 한층 더 활개를 치면서 예술인간의 사회적 생산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고, 이윽고 예술가-노동자 또는 노동자-예술가를 양산하기에 이른다.

오늘날의 다중은 창조하도록 요구받을 뿐만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만 그 존재이유를 입증 받는다. 지식, 정보, 상징, 정서, 소통의 생산이 주요한 생산영역으로 되고 독창성이 지적재산권의 핵심축으로 규정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다중들로 하여금 매순간 인지적 창조능력을 보이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 예술가들이 보여주었던 [특수한] 능력과 자질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다중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된다. 누구나가 예술가이기를 요구받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예술인간의 탄생과 성장의 조건이다. ... 스펙터클 [도시의] 풍경은 다중의 이 모든 예술적 창조능력을 자본과 권력의 축적이라는 목적에 맞춰 포획하고 집적·집중시키고 편집하고 재구성한 산물이다. ... 이처럼 스펙터클 속에서 예술인간의 잠재력은 냉소기계의 에너지로 기능하며 그 속에서는 가상풍경과 실제풍경의 분리, 가상풍경에 의한 실제풍경의 은폐, 실제풍경의 가상풍경으로의 대체가 체계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다.<sup>28)</sup>

그런데 여기서 스펙터클 도시가 중대한 모순적 전기를 맞게 된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 한편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은 매체와 결합하면서(mediatisation) 투어리피케이션(tourification)이라는 한층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sup>29)</sup> 이로써 스펙터클의 도시는 도시의 스펙터클과 함께 중층적 이상증식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 바로 수많은 도시거주자의 다양한 문화적 실천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같은 조건은 도시의 스펙터클과 스펙터클의 도시, 이 둘 모두의 토대가 모종의 공유(共有·公有) 공간 또한 사회적

국공간학회·서울연구원, 2016.06, p.59. ‘스펙터클(spectacle)’이 기 드보르(Guy Debord)를 비롯한 프랑스 상황주의자의 개념임은 잘 알려져 있다.

27) ‘인지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불안정 노동자와 인지 노동자를 공통적으로 착취하고 지배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요약하자면 “인지에 대한 착취와 지배에 기초한 축적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공동도시의 주체로 설정되는 다중”과도 연결되는 개념이며, 이는 이 작업의 말미에서 논의할 ‘도시 공동체의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광노완, 「공동도시에서 글로컬이고라로: 인지자본주의 공동도시론의 변혁과 글로컬이고라 개념의 진화」,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9권 제1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02, p.161, p.158. 실제로 광노완의 작업은 상기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 기획된 것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글, pp.156-162를 볼 것.

28) 조정환, 같은 글, p. 59 — [ ] 및 부분 수정 글쓴이.

29) 여기서 매체는 TV와 같은 전통적 의미의 대중매체(mass media)에서 SNS 같은 개인적 차원의 매체를 두루 아우른다. 그리고 ‘투어리피케이션’은 ‘tour’와 ‘gentrification’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는 ‘몰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터전이 관광지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는 (강제)퇴거의 과정’을 뜻한다. 달리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y + gentrification]으로 불리기도 한다.

으로 생산해 내고야 마는 예술인간의 창조적 능력이라는 역설적 사실을 반증한다. 다시 말해서 스펙터클의 도시와 도시의 스펙터클로 대변되는 현시대 도시재생은 비록 “그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수단이 되는 경우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랑을 받는 이러한 공통성의 예술형식”, 곧 현시대 예술인간의 “특이성들을 기초로 한 집단적 결정과 협치”를 뒷받침하는 “예술인간적 다중의 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sup>30)</sup>

이 중대한 모순, 또 그 간극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순적 상황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예술가를 포함한 문화실천가의 관계는 어떻게 재규명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는 또 어디로 잡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이자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하는 젠트리파이어”(both the gentrified and gentrifying)이기만 한 것일까?<sup>31)</sup> 이렇듯 그 사람들은 양가적 존재이기만 한 것일까?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에 기여함은 물론 심지어 그것의 가속화마저 촉진하는 이인 것일까? 그도 아니면 그 와중에도 그 속도에 맞선 자기 고유의 리듬으로 그것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것에 저항하고 중국에는 그것을 극복하는 이, 곧 기존의 스펙터클을 초과하는 ‘메타스펙터클’을 상상하고 실현하는 이인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의 가능성은 다음에서 제시하는 한국 부산(釜山)과 중국 창춘(長春)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32)</sup> 그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에 앞서 한

30) 조정환, 앞의 글, pp.59-60.

31) 김연진, 2018, 앞의 글, p.12.

32) 부산이 모던 도시로 변모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북항 매축(1902-1908)을 통한 부산역 준공(1910) 및 항만 시설 완비(북항 제1부두, 1912)를 빼 놓을 순 없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부산의 북항 매축이야말로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경부선 부설과 함께 그것을 통한 “식민적 질주권”의 형성 및 “그 관문 및 기착지로서 부산역”을 가능케 한 것이다. 전국조, 「속도와 리듬의 변증법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도시사회 및 그 주체의 가능성 — 식민적 질주권 부산의 사회적 생산과 탈식민화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문화기획·행정·이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02, p.112. 더 자세한 논의는 같은 글, pp.112-119를 볼 것. 실지로 부산 원도심의 성쇠는 물론 그에 따른 ‘또따또가’의 사회적 생산 또한 북항 매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도시화 과정 전반 또는 더 구체적으로 식민 도시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창춘 또한 부산과 유사한 길을 걷게 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창춘은 1932년 ‘만주국의 수도’가 되면서 본격적인 모던 도시로 발돋움한다(당시엔 ‘신경(新京)’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해방이 되면서 원래의 것을 되찾는다). 이 같은 창춘의 급속한 발전 및 변모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는 것 역시 다른 아닌 ‘철도’다. 먼저 ‘동청철도(東淸鐵道, 현재의 ‘하얼빈 철도’)가 부설된다(1903). 곧이어 러일전쟁의 여파로 창춘을 경계로 한 동청철도의 남쪽이 일제 지배하의 ‘남만주 철도(‘만철’로 줄여서 부르기도 함)’가 된다(1905). 창춘은 이 같은 철도를 기반으로 해서 만주국의 수도가 되며, 그 이후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가 된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창춘엔 다양한 문화유산을 비롯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보존돼 있고, 현시대 중국 정부에서도 다각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진, 「해방 직후 長春의 조선인 — 기억과 정치 사이」, 『대동문화연구』, 제83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09, p.389. 손영 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주민갈등: 중국 장춘시를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한국관광연구학회, 제33권 제5호, 2019.05, p.93. ‘무단거리’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창춘의 이 같은 역사사회적 맥락과 결코 무관하지

가지 해 두고 싶은 얘기가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이끄는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부산의 경우는 ‘정부 주도 + 예술 주도의 상의하달 유형(top-down state-led and art-led gentrification)’으로, 창춘의 경우는 넓은 의미에서 ‘청년층이 주도하는 하의상달유형(bottom-up studentification)’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33)</sup>

#### 4. 한국과 중국의 젠트리피케이션: 부산과 창춘의 사례

##### 1) 부산: ‘월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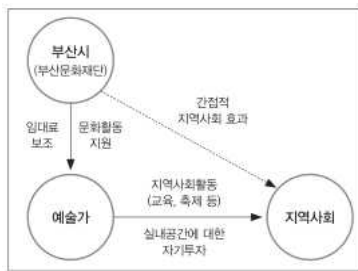

현시대의 젠트리피케이션, 또 스펙터클의 도시와 도시의 스펙터클이란 맥락에서 예술가를 포함한 문화실천가의 계급적 함의를 밝히는 일은 꽤 까다롭다.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업인 ‘또따또가’의 경우, 그 사람들은 이미 이른바 ‘문화지구 정책 거버넌스(policy governance of cultural districts)’의 일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sup>34)</sup>

않다 할 것이다.

33) 김연진, 2016, 앞의 글, p.v, pp.17-19. ‘스튜던티피케이션(studentification)’은 그 용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생’이 주도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유형으로 그 주체는 주로 대학생이다. 참고로 사례 구성을 이렇게 한 까닭은 한중 간 정치체제의 차이에 따른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급적 배제하기 위해서다.

34) 여기서 ‘문화지구’, ‘문화지구 조성 정책’, ‘거버넌스’, ‘정책 거버넌스’를 차례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문화지구’란 “원래 예술가들의 자생적인 공간적 집적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현시대 ‘도시재생’의 맥락에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것을 일컫기도 한다. 그렇기에 ‘문화지구 조성 정책’은 “대표적인 문화기반 도시재생전략(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strategy)”으로 간주된다. 더 구체적으로, ‘문화지구 조성 정책’은 “침체된 도심지역이나 전통시장에 예술가를 유치하여 창작활동을 자극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축제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말하며, “예술가들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제어하여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유도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정책 추진에서 관련 주체들의 협력적 관계망”을, ‘정책 거버넌스’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부조직과 비정부조직 간의 협력 및 유관 조직 간 상호 의존성을 의미”한다. 박세훈·주유민,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지구정책 거버넌스 연구: 부산광역시 또따또가를 사례로』, 『국토연구』, 제83권, 국토연구원, 2014.12, pp.49-67. Rhodes, Roderick. A. W.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1997 — 박세훈·주유민, 같은 글, p.53에서 재인용. 참고로 지면 관계상 부산과 창춘의 경우 모두 그림과 표로 정리토록 한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두 논문(박세훈·주유민, 2014, 앞의 글; Zhang, Jing. et al. “Young Pioneers, Vitality, and Commercial Gentrification in Mudan Street, Changchun, China”, *Sustainability* 12(8), 3113, 2020, pp.1-15)의 내용을 발췌·수정·정리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따로 인용부호를 붙이지 않고 쪽수만 적도록 하고, 다른 자료를 참조한 경우엔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다.

&lt;표5&gt; '또따또가'의 10년(2010-2019)과 거버넌스 특징

'또따또가'의 10년(2010-2019)		
위치 및 정책구조 개관	<p>&lt;그림1&gt; 위치<sup>35)</sup></p> 	<p>&lt;그림2&gt; '또따또가'의 정책구조<sup>57)</sup></p> 
위치 및 현황 <sup>36)</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 중랑동과 동광동 일대</li> <li>·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원도심 문화 공동체 프로젝트: 문화 예술 전 분야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거주하며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형성</li> <li>· 공간시설: 26개 건물, 80실</li> <li>· 입주 인원: 개인작가 43명, 단체 24개, 총 223명 활동 중</li> </ul>	
사업 명칭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용과 존중, 이해와 소통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의미: '톨레랑스(Tolerance)', '따로 또 같이', '가(街)'를 합성(55-56)</li> </ul>	<p>&lt;그림3&gt; '또따또가'<sup>37)</sup></p>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부산시가 문화예술 관련 예산 일부가 남아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가 원도심 내 빈 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 임대사업을 제안하면서 시작(56)</li> </ul>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광역시 중구의 구도심 지역인 중랑동 2, 3가 일대를 대상으로 건물 2-4층의 빈사무실을 임대하여 예술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56)</li> </ul>	
사업 기간 및 사업비	제1기	· 3년(2010-2012), 연 3억 원 → 2011년 연 4억 원으로 증액
	제2기	· 3년(2013-2015),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56)
	제3기	· 3년(2016-2018),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제4기	· 3년(2019-현재), 예산 절반 수준으로 삭감: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또따또가 예산 3억2,000만원(공모 기준)을 1억6,000만원으로 삭감, 삭감안은 본회의에서 통과 <sup>38)</sup>
문화지구 정책 거버넌스의 모델(55) 및 '또따또가'의 특징(64)		
정부-예술가	모델의 보편성	'또따또가'의 특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가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li> <li>· 과도한 정부간접·통제 배제</li> <li>· 예술가/문화활동가에 주도권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 운영, 축제기획,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예술가 자율성 보장: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지원은 보장, 간섭은 배제)</li> <li>·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들을 통해 예술가 지원</li> <li>· 지역사회활동을 제외한 예술가들에 대한 요구 조건 최소화</li> </ul>

		화 · 제2기 활동은 예술가들이 직접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토록 함
정부-시장	· 대규모 물리적 개발 억제 · 단기간의 지가상승 최소화 · 적정 수준의 소비 기능 부여	·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운영 · 개발 사업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축제, 교육, 공동체활동 등) 중심 운영 · 2-4층 사무공간을 임대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만들기보다는 예술가들의 정착 여건 조성에 집중
정부-지역사회	· 지역문화·역사와 조화 고려 · 지역 건축자산 활용 · 지역 출신 예술가 우선지원 · 지역사회 주민지원	· 예술가 공모 시 개인적 역량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 강조 · 고급예술보다는 지역사회에 눈높이에 맞춘 교육·축제 프로그램 운영 · 초기부터 건물주 및 상인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파트너십 구축 · 인쇄골목 프로젝트, 주꾸미골목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 밀착형 문화예술사업 기획·운영

&lt;표6&gt; '또따또가'의 10년에 대한 제언 및 현재 진행상황

제언 및 진행상황	
제언 <sup>39)</sup>	이후 진행상황
· 잠재적 젠트리피케이션 심화 및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토론회 및 컨퍼런스 개최, 상생 협약 체결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필요	· 악화일로를 거듭 <sup>40)</sup> - '또따또가' 예산삭감 문제의 근본적 원인: 소통 및 거버넌스 과정의 부재 - 그간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쌓아 놓았던 거버넌스 신뢰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거버넌스 소실, 대화 부재
· 대부분 임차공간인 관계로 안정적 활동을 통해 지역 정체성 보존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시설 확보	·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마련 <sup>41)</sup> - 1918년 한성은행 부산지점으로 설립 - 1960년대 개인에게 매각된 이후 상업용도로 이용되다가 2000년대 들어 철거위기에 있던 것을 부산시가 매입 -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2018년 4월 '한성1918 부산생

35) 하인식, 「임대료 상승에 부산 예술 창작기반 '흔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5083174351> [2020.08.02].

36)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부산문화재단, <http://www.bscf.or.kr/10/05.php> [2020.11.18].

37) 정치섭, 「지금 이곳에선/예술인과 시민, 멕시코도 껴한 '또따또가」,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608120470617614> [2020.08.02].

38) 조상인, 「부산 원도심 '또따또가' 살리자! ... 예술가들 빨났다」, 『서울경제』, <https://www.seaily.com/NewsView/1VS4FKPCAP> [2020.08.01].

	활문화센터'로 새롭게 탄생
· 안정적 활동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 예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 2019,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sup>42)</sup> · 2020.07.13.-07.14, 08.03, 「부산시민 문화현장」 제정을 위한 대시민 의견 수렴 및 시민공청회 개최 <sup>43)</sup>

핵심은 부산광역시·부산문화재단·예술가 같은 '또따또가' 관련 주체들이 지난 10년 동안 기울인 노력이 상당한데도,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과 위협은 늘 그 주체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점이다. 그 까닭은 현시대에 이르러 도시와 스펙터클 각각의 변위가 여전히 스펙터클의 도시와 도시의 스펙터클이란 벡터를 형성하기 위해, 그것도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예술가를 비롯한 문화실천가는 또 어떻게 움직여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나름의 해답은 조금 있다가 찾아보도록 한다.

## 2) 창춘: 무단거리(牡丹胡同: Mudan Street)

<표7> 중국 도시재생 개관과 '창춘 무단거리'의 10 여년(2008-2020)

중국 도시재생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대부터 대도시에서 시작<sup>44)</sup></li> <li>· 진행과정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관리자나 기획자 같은 엘리트의 의지를 반영한 새로운 젠트리피케이션, 부유층의 취향에 맞는 도시경관 조성 → 전통 상업가(街)의 대거 철거 및 대대적 정비<sup>(1-2)</sup><sup>45)</sup></li> </ul> </li> <li>·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리 이용자의 진정한 욕구 및 감정은 대부분 무시 → 상업공간과 사람의 단절</li> <li>- 소비문화와 분위기 훼손 → 거의 텅 비게 된 신축 건물과 침체된 사업<sup>(2)</sup><sup>46)</sup></li> </ul> </li> </ul>

39) 손은하, 「문화적 도시재생의 함정」, 『동북아 문화연구』, 제5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7.03, p.50.

40) 차재근 외, 「[대담] 2019년 부산 문화정책 이슈 돌아보기」,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http://e-archive.bscf.or.kr/27\\_policy/03\\_policy\\_view.php?pmode=view&idx=188](http://e-archive.bscf.or.kr/27_policy/03_policy_view.php?pmode=view&idx=188) [2020.07.31].

41)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http://1918.bscf.or.kr/> [2020.11.07].

42) 조찬희,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https://www.busan.go.kr/nbgosi/view?sno=44660&gosiGbn=P&curPage=1> [2020.08.01].

43) 최윤정, 「시민의 문화향유 권리와 문화도시 부산의 미래가치를 담다! '부산시민 문화현장' 제정을 위한 대시민 의견 수렴」,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https://www.busan.go.kr/nbtnewsBU/1444148?curPage=&srchBeginDt=2020-07-04&srchEndDt=2020-07-11&srchKey=&srchText=>; 「시민의 문화권리와 문화도시 부산의 미래가치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부산시민 문화현장'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https://www.busan.go.kr/nbtnewsBU/1448376?curPage=&srchBeginDt=2020-07-25&srchEndDt=2020-08-01&srchKey=&srchText=> [2020.08.01].

창춘 '무단거리'의 10 여년(2008-2020)		
창춘과 무단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380만 명, 중국 동북부의 대도시</li> <li>- 한때 만주국의 수도(1930-40년대): 서구 소비 개념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소비 도시</li> <li>-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제조업 중심지로 탈바꿈</li> <li>- 개혁개방 이후: 서비스산업의 급성장 및 상업 공간 발달</li> </ul> </li> <li>• 무단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주요 쇼핑센터 중 하나인 구이린거리 상업지구(桂林路商業區)와 인접한 도심 지역</li> <li>- 확장적 의미: 상업 활동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사업은 무단거리에 한정되지 않고 무단거리를 핵심으로 해서 여러 주변 거리로 확장</li> <li>→ 무단거리는 이렇게 형성된 블록 전체를 지칭(4)</li> </ul> </li> </ul>	<p>&lt;그림4&gt; 무단거리(4)</p>  
무단 거리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과 주체의 특성	<p>&lt;그림5&gt; 무단거리의 다양한 카페(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부터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급격한 발생<sup>47)</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여 년에 걸쳐 점포 수 급증: 약 2.5배</li> <li>- 2008년 이전: 80개 미만 — 식료품점, 수리점, 소규모 생필품 취급 점포</li> <li>- 2019년: 206개 — 특별히 문화 및 여가 관련 소비 매장 112곳(3분의 2가량 차지)</li> <li>- 특징: 공간의 다양성(카페, 바, 레스토랑, 꽃집, 사진관, 수공예품 스튜디오, 음악 스튜디오 따위)으로 말미암아 현시대 중국 청년문화를 대표하는 새로운 소비이자 패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li> </ul> </li> <li>• 주체: 젊고 전위적인 개척자(young avant-garde pione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적인 소규모 카페, 술집 따위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li> <li>- 목적: 도시 청년층의 정신적 고향 건립, 무단거리의 상징적 재건축 실현</li> <li>- 효과: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더해 중산층의 문화적 정체성 획득</li> <li>→ 상업적 활력 자극을 통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활성화(3-4, 13)</li> </ul> </li> </ul>	
현재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의 위협(지속적)</li> <li>- 임대료 상승과 치열한 경쟁에 이은 청년문화 분위기 약화<sup>48)</sup></li> </ul>	



	→ 젊은 사업가의 강제퇴거 초래 · 정부의 압박(2017년부터) - 시 정부의 새로운 거리 정비 사업 개시 및 제도적인 규제 강화에 따른 대부분의 상점가 개조 → 젊은 개척자의 강제퇴거 가속화(4-5, 11)
의의 및 제언	· 의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비록 성공적 평가를 내리긴 힘들다 해도 하의상달 도시 재생(a bottom-up urban regeneration)의 훌륭한 사례 · 제언 -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의하달, 중앙집권적 접근의 지양 필요 - 시 정부의 경우, 하의상달 도시 재생의 보호·촉진을 위한 정책 입안 및 시행 필요 (13)

<표8> 카페 운영자 인터뷰: 유의미한 결과<sup>49)</sup>

시기 및 대상	· 총 3회: 2012년 12월, 2015년 7월, 2017년 6월, 카페 운영자: 16명		
질문	응답 내용	응답 인원	백분율(%)
교육수준	고등학교	1	6.3
	학사학위	13	81.3
	대학원 학위	2	12.5
전공	예술	6	37.5
	문학	3	18.8
	기타	7	43.8
주업(主業) 및 이전 직업	대학 졸업자	7	43.8
	사무직 종사자	9	56.3
	예술가	3	18.8
	편집자·작가	2	12.5

44) Liu, Guiwen. *et al.* "An evaluation of urban renewal policies of shenzhen, China", *Sustainability* 9(6), 1001, 2017. Leaf, Michael. "Inner city redevelopment in china", *Cities* 12(3), pp.149-162 — Zhang, *et al.* 앞의 글에서 재인용.

45) Yang, Qinran. & Min, Zhou. "Interpreting gentrification in Chengdu in the post-socialist transition of China: A sociocultural perspective", *Geoforum* 93, 2018, pp.120-132 — Zhang, *et al.* 앞의 글에서 재인용.

46) Shin, Hyun Bang. "Urban conservation and revalorisation of dilapidated historic quarters: The case of nanluoguxiang in Beijing", *Cities* 27, 2010, pp.S43-S54 — Zhang, *et al.* 앞의 글에서 재인용.

47) 공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때 젠트리피케이션은 "주거지역 젠트리피케이션(Residential Gentrification), 상업지역 젠트리피케이션(Commercial Gentrification), 지방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Rural Gentrific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연진, 2016, 앞의 글, p.v, p.129.

48) 베이징의 '798 예술구'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협은 여전하다.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은 "현재 798 예술구의 발전에 있어 가장 큰 과제이며 자생적인 문화예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예술 공간 대부분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정보은·김진형, 「공간 재생을 통한 중국 문화예술인 공간실현의 현대적 의미 고찰」, 『중국연구』, 제77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8.12, p.318.

49) Zhang, *et al. op cit.* p.7.

	사무원	2	12.5
	변호사	1	6.3
	심리학자	1	6.3
	식당 경영인	1	6.3
카페 운영 동기*	수익 창출	16	100
	자신을 위한 이상적 장소 건설	14	87.5
	좋아하는 것을 친구와 공유	13	81.3
	사무직의 한계: 적은 수입과 적은 자유	9	56.3
곤란한 점과 위험요소*	지대 상승	16	100
	현재의 낮은 자본	11	68.8
	점점 더 격렬해지는 경쟁	10	62.5
	불안정한 고객 수요	8	50.0

\*복수(複數)의 대답이 이뤄진 질문

결론으로 향하기 전에 이상의 분석에서 도출할 수 있는 몇 가지 함의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메타스펙터클’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속화, 곧 스펙터클의 도시와 도시의 스펙터클이 중층적 이상증식 일변도의 궤도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마찰력 및 제동력의 사회적 생산을 전략으로 삼을 때 꼭 필요한 변증법적 전술이다. 메타스펙터클의 핵심은 ‘초과(超過, excess)’에 있다.<sup>50)</sup> 하지만 그 초과가 말 그대로 기존의 스펙터클보다 더 굉장한 뭔가의 창조를 상징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 예컨대 ‘또따또가’는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한 공간의 물리적 변형을 전혀 피하지 않음으로써 그곳을 들르는 이의 시선을 끄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 이는 그 정책의 초점이 물리적 도시환경의 개선보다는 “공동체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와 같은 사회적 측면”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sup>51)</sup> 이러한 방식을 ‘메타스펙터클’로 볼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현재 도시공간을 좌지우지하는 기술관료의 상상에선 이미 ‘외재화된’ 것이기 때문이다.<sup>52)</sup> 그 이전에는 내재적이었을 무엇, 하지만 이미 외재화돼 버린 그 무엇을 ‘재내재화’함으로써 기존의 스펙터클 생산 방식을 초과해 버리는 것, 곧 외부로 향해 뻗어 나가기 일쑤인 스펙터클의 변위를 내부로 변환함으로써 그때까진 잠재태로 머물러

50) 여기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메타스펙터클’은 얼마 전 대학원 은사 및 여러 동학과 나눈 얘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자리를 함께한 모든 선생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

51) 박세훈·주유민, 앞의 글, p.61.

52) 이는 르페브르가 비판하는 어바니즘(urbanisme)과 그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이데올로그(어바니스트)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Elden, Stuart. *Understanding Henri Lefebvre: Theory and the Possible*, London & New York: Continuum, 2004, pp.143-146; 스튜어트 엘든, 『앙리 르페브르 이해하기: 이론과 가능한 것』, 전국조 옮김, 이현석 감수,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8, pp.243-246을 볼 것.

있을 수밖에 없던 그 무엇을 현실태로 변태(變態)시키는 것, 끝으로 그 과정을 꼼꼼히 밟아 나가면서 ‘탈’젠트리피케이션의 전략에 필요한 구체적 전술을 하나둘 수립해 나가는 것, ‘또따또가’는 어쩌면 그 과정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면모는 창춘 무단거리 사례의 상황과는 꽤 달라 보인다. 무단거리의 경우, 스펙터클의 도시와 도시의 스펙터클이라는 중층적 이상증식은 물론 전통적인 계급적 의미의 젠트리피케이션 또한 일정 부분은 답습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의 의의가 전혀 없는 건 또 아니다. 바로 이 작업에서 집중하고 있는 예술가를 포함한 문화실천가의 계급적 함의와 관련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선 다음의 정의를 한 번 봐 보자. 이 작업에서 논의하고 있는 ‘예술가를 포함한 문화실천가’를 다른 방식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다. “문화 주도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체로서 예술가를 포함, 문화활동이나 행사를 창안하고 조직하는 문화기획자 등을 통칭하여 문화기업가(cultural entrepreneurs)라 하기도 한다.”<sup>53)</sup> 타당한 소리인 것 같지만 웬지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무단거리의 청년 창업가한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계급적 특징이 바로 “높은 문화자본 수준과 낮은 경제자본 수준”이기 때문이다.<sup>54)</sup> 그리고 이 특징은 ‘또따또가’의 예술가 집단한테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이 공통점의 함의는 문화자본이 꼭 경제자본과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부의 대물림’을 예로 들어볼 때, 이전 세대의 자본 축적량으로 문화자본을 축적함과 동시에 그것의 수준까지 높여 가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것과 상반하는 경우 또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이전 세대까지 축적해 놓은 부의 정도가 다음 세대의 계급의식 및 계급성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순 있겠으나 그것이 결정적이라고 말하기엔 다소간의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결정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주장은 결정론이자 환원론으로 변질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만큼 현시대 문화실천가의 계급적 층위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시대 문화실천가의 계급적 함의와 그것의 동학은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태적 질문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의 추동력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역사사회적 당위는 또 어떻게 확보 가능한가?’와 같은 일련의 동태적 질문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탐구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따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문화자본의 벡터’와 ‘도시 공동체로서 창조적 장소 만들기’에 있다.

53) 김연진, 2018, 앞의 글, p.12.

54) Zhang. *et al. op cit.* pp.2-3, pp.12-13.

## 5. 나가며: ‘문화자본의 벡터’와 ‘도시 공동체로서 장소 만들기’

먼저 현시대의 문화실천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한편으로 그 사람들은 ‘노동자’ 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가(자본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업가나 자본가로 불릴 수 있는 까닭은 경제자본보다는 문화자본을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예술가’로 불리는 사람의 경우, 사회적 지위의 역사적 부침에도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것, 바로 문화자본과 그것의 수준이다. 하지만 현시대에 이르러 단지 그것을 쌓아두고 있기만 해선 문화실천가로 불릴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의 변위와 벡터를, 그것도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 첫 발은 바로 ‘도시 공동체의 형성’으로 뻗 수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앞서 밝힌 것처럼 현시대 도시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스펙터클의 도시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말처럼 ‘자본축적의 목적은 오직 더 많은 자본축적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술인간적 다중의 힘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또따또가’의 경우, 그 힘은 2019년 12월 13일 부산시의회에서 예년 대비 절반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인 14일부터 ‘예술 창작공간 운영 정상화와 문화예술 진흥사업 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술인 연대 투쟁’을 벌이기 시작해 1,300명 이상이 온라인 서명에 동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sup>55)</sup> 무단 거리의 경우, 그 힘은 ‘좋아하는 것을 친구와 공유’하려는, 도시 공동체를 향한 열망과 그 열망이 형성한 사회적 벡터로 드러났다. 그것도 전체 응답자의 80%가 넘는 수치로 말이다 — <표8>.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렇기에 늘 염두에 뒀어야만 하는 사실도 하나 있다. 현시대 문화실천가 또한 다른 어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부산과 창춘 경우 모두 마찬가지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현실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창춘의 경우 중국 학계에서 정부의 전향적 노력을 권고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 생겨난 것일 터이다.<sup>56)</sup> 그렇다고 마냥 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해답은 ‘끝없는 대화’에 있다.<sup>57)</sup> 이를테면 문화예술 기반의 도시재생이란 큰 역사

55) 조상인, 앞의 글.

56) Zhang, *et al. op cit.* p.13.

57) 이 대화는 ‘소통(communication)’, 특별히 앞서 언급한 미디어화를 토대로 하는 소통과는 아예 다른 것이다. “미디어화는 **대화(dialogue)**를 지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앙리 르페브르, 『리

사회적 맥락에서 문화예술의 상상력 및 실천력과 철학의 비판력을 ‘절합(節合, articulation)’하는 대화처럼 말이다. 그 대화를 통해 서로는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그 풍요로움을 통해 ‘도시 공동체로서 창조적 장소 만들기’라는 현시대의 사회적 의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극복하는 추동력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갈 때 현시대 문화실천가는 비로소 도시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연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모두는 시민 자신의 힘으로 더 정의로운 도시를 가꿔나갈 수 있는 토대로 작동하게 된다.<sup>58)</sup> ‘또따또가’와 ‘무단거리’의 두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 작업에서 해 왔던 논의 모두는 바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요컨대 현시대의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실천가의 계급적 함의는 바로 ‘문화자본의 벡터’와 ‘도시 공동체로서 창조적 장소 만들기’의 상관관계 어딘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 혹시 누군가가 모종의 바람직한 관계를 지금 이 순간 상상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은 이미 우리 삶에 갖춰져 있을 공산이 크다. 그 조건의 발견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면, 그 문제는 그것이 다만 망각의 늪에 빠져 있을 뿐이라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끝으로 그 늪에서 건져내야 할 얘기, 또는 혹시라도 아직 그 늪으로 빠뜨리진 않았다면 결코 그리되도록 놔둬선 안 될 얘기가 하나 더 있다.

도시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거의 총체적으로 해체됐음을, 여전히 ‘일반적 관심’을 대변한다고 감히 주장하는 부르주아 활동과 생활방식의 결과로 사회가 ‘사적’ 개인으로 원자화됐음을 말해 준다.<sup>59)</sup>

등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정기현 옮김, 갈무리, 2013, p.152 — 강조 원저.

58) Meagher, *op cit.* p.169.

59) Lefebvre, Henri.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 Introduction* (2<sup>6</sup> ed.), Paris: L'Arche, 1958, p.248;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ume I: Introduction*, John Moore (tr.), London: Verso, 1991, p.233 — Elden, *op cit.* p.143; 엘든, 앞의 책, p.242에서 재인용.

## 【참고문헌】

### <논문 및 서적>

- 곽노완, 「공통도시에서 글로벌아고라로: 인지자본주의 공통도시론의 변혁과 글로벌아고라 개념의 진화」,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9권 제1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02, pp.144-171.
- 김연진, 『문화·예술분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기본연구 2016-20), 2016.
- \_\_\_\_\_,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환경논총』, 제61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8.03, pp.12-17.
- 김용창, 「도시 인클로저와 거주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심포저엄 자료집』, 한국공간학회·서울연구원, 2016.06, pp.113-132.
- 박세훈·주유민,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지구정책 거버넌스 연구: 부산광역시 또따또가를 사례로」, 『국토연구』, 제83권, 국토연구원, 2014.12, pp.49-67.
- 박재연·이현희 외, 『고어대사전』, 권12,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학고방, 2016.
- 손 영 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주민갈등: 중국 장춘시를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한국관광연구학회, 제33권 제5호, 2019.05, pp.91-104.
- 손은하, 「문화적 도시재생의 함정」, 『동북아 문화연구』, 제5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7.03, pp.43-60.
- 앙리 르페브르,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정기현 옮김, 갈무리, 2013.
- 이동진, 「해방 직후 長春의 조선인 — 기억과 정치 사이」, 『대동문화연구』, 제83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09, pp.387-430.
- 이선영, 「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인가?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논의의 유행에 대한 진단과 전망」, 『예술가,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재생』, 제7회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서울문화재단, 2015.11, pp.35-45.
- 정보은·김진형, 「공간 재생을 통한 중국 문화예술인 공간실현의 현대적 의미 고찰」, 『중국연구』, 제77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8.12, pp.309-333.
- 조명래, 「사람 중심 도시와 도시재생」, 『문화재생 포럼: 호시탐탐(好市耽探)』, 경기문화재단, 2016, pp.11-27.
- 조정환, 「예술인간의 탄생과 반자본주의적 공통도시의 전망」,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심포저엄 자료집』, 한국공간학회·서울연구원, 2016.06, pp.53-68.
- Elden, Stuart. *Understanding Henri Lefebvre: Theory and the Possible*, London & New York: Continuum, 2004; 스튜어트 엘든, 『앙리 르페브르 이해하기: 이론과 가능한 것』, 전국조 옮김, 이현석 감수,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8.
- Hamnett, Chris. "Gentrification: its history, forms, causes and consequences", *Artist, Gentrification and Urban Regeneration*, The 7<sup>th</sup> Seoul Art Space International Symposium,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5.11, pp.7-27.

- Hodkinson, Stuart. "The new urban enclosures", *City: analysis of urban trends, culture, theory, policy, action* 16(5), 2012, pp.500-518.
- Leaf, Michael. "Inner city redevelopment in china", *Cities* 12(3), pp.149-162 — Zhang, *et al.* 2020, p.2에서 재인용.
- Lefebvre, Henri.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 Introduction* (2<sup>e</sup> ed.), Paris: L'Arche, 1958;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ume I: Introduction*, John Moore (tr.), London: Verso, 1991 — Elden, 2004, p.143; 엘든, 2018, p.242에서 재인용.
- Liu, Guiwen. *et al.* "An evaluation of urban renewal policies of Shenzhen, China", *Sustainability*, 9(6), 1001, 2017 — Zhang, *et al.* 2020, p.1에서 재인용.
- Meagher, Sharon M. "How Might Creative Placemaking Lead to More Just Cities?", *The Routledge Handbook of Philosophy of the City*, S. M. Meagher, S. Noll, and J. S. Biehl (e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20, pp.169-180.
- Miles, Steven. & Paddison, Ronan. "Introduction: The Rise and Rise of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Urban Studies*, 42(5/6), 2005, pp.833-839.
- Nhalevilo, Emília A. "Language is also a place of struggle", *Cultural Studies of Science Education* 6(2), 2011, pp. 441-444.
- Rhodes, Roderick. A. W.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1997 — 박세훈·주유민, 2014, p.53에서 재인용.
- Sharp, Joanne. Pollock, Venda. & Paddison, Ronan. "Just Art for a Just City: Public Art and Social Inclusion in Urban Regeneration", *Urban Studies*, 42(5/6), 2005, pp.1001-1023.
- Shin, Hyun Bang. "Urban conservation and revalorisation of dilapidated historic quarters: The case of nanluoguxiang in Beijing", *Cities* 27, 2010, pp.S3-S54 — Zhang, *et al.* 2020, p.2에서 재인용.
- Smith, Neil. "Foreword", *The Urban Revolution* (Lefebvre, Henri.) Robert Bononno (t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London, 2003, pp.vii-xxiii.
- Widodo, Johannes. "Gentrification, Conservation, and Regeneration: Lessons from Urban Conservation Cases in Asia", *The 20<sup>th</sup> Century Urban Cultural heritage in Our Daily Life*, UNESCO Asia-Pacific International Forum on the Preservation of Urban Cultural Heritag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0.11, pp.99-105.
- Williams, Raymond. *The Country and the City*, New York: OUP, 1973; 레이먼드 윌리엄스, 『시골과 도시』, 이현석 옮김, 나남, 2013.
- Yang, Qinran. & Min, Zhou. "Interpreting gentrification in Chengdu in the post-socialist transition of China: A sociocultural perspective", *Geoforum* 93, 2018, pp.120-132 — Zhang, *et al.* 2020, pp.1-2에서 재인용.

- Yudice, George. *The Expediency of Culture: Uses of Culture in the Global Er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3 — Miles, Steven & Paddison. Ronan. "Introduction: The Rise and Rise of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Urban Studies*, 42(5/6), 2005, p.834에서 재인용.
- Zhang, Jing. *et al.* "Young Pioneers, Vitality, and Commercial Gentrification in Mudan Street, Changchun, China", *Sustainability* 12(8), 3113, 2020, pp.1-15.

<디지털 사전 자료>

- 영영중 사전(Cambridge Dictionary +Plus): 1. Cambridge English-Chinese (Traditional) Dictionary
- 영영사전(Cambridge Dictionary +Plus): 1. Cambridge Academic Content Dictionary, 『캠브리지 학술 콘텐츠 사전』; 2. Cambridge Business English Dictionary, 『캠브리지 비즈니스 영어 사전』.
- 영어사전(네이버): 1. 『프라임 영한사전』(제6판, 동아출판, 2018); 2. 『올인올 영한사전』(YBM NET); 3. 『슈프림 영한대사전』(2005, 민중서관, 한국영어영문학회).
- 중국어사전(네이버): 1. 『라인딕 중영사전』.

<그 밖의 자료>

- 김명석, 「‘추적 60분’ 신춘·대학로·홍대, 문화 없어지고 돈만 남았다」, 『TV리포트』, 2015.
- 김형배, 「뜨는 동네 주민 떠나게 하는 ‘동지 내몰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2016.
- 박시정, 「인체 암세포가 건강한 이웃 세포 파괴하는 세포 경쟁 매커니즘 발견」, 『트리니티 메디컬 뉴스』, 2019.
- 정치섭, 「지금 이곳에선/예술인과 시민, 멕시코도 짬한 ‘또따또가」, 『한국일보』, 2016.
- 조상인, 「부산 원도심 ‘또따또가’ 살리자! ... 예술가들 뿔났다」, 『서울경제』, 2019.
- 조찬희,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2019.
- 차재근 외, 「[대담] 2019년 부산 문화정책 이슈 돌아보기」,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2020.
- 최윤정, 「시민의 문화향유 권리와 문화도시 부산의 미래가치를 담다! ‘부산시민 문화현장’ 제정을 위한 대시민 의견 수렴」,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2020.
- 최윤정, 「시민의 문화권리와 문화도시 부산의 미래가치를 위한 사회적 대합의, ‘부산시민 문화현장’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2020.
- 하인식, 「임대료 상승에 부산 예술 창작기반 ‘흔들」, 『한국경제』, 2015.
-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부산문화재단.
-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 「Talk: 土紳化」, 『維基百科』.



##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紳士化, 基于文化藝術的城市再生, TOTATO街, 牡丹胡同, 文化資本的矢量, 打造創意場所				
	영문	Gentrification (Embourgeoisement), Culture-and-art-led Urban Regeneration, Ttottattoga, Mudan Street, Vector of Cultural Capital, Creative Place Making				
<div>Contemporary Implications of Culture-and-art-led Urban Regeneration and Class : Based on the Case Analyses of Busan and Changchun</div> <div>Jeon, Guk-Jo</div> <div>The main purpose of this work is to grasp and explore contemporary implications for culture-and-art-led urban regenerations and class problems through the case analyses of Busan and Changchun. Within the socio-historical context of the urban regenerations as such, there are, as a matter of fact, nothing more important than dialogues that articulate between the power of imagination and practice intrinsic to culture and art, and that of philosophical criticism. With the aid of the dialogues, both powers can be more abundant, through which the contemporary social agenda of 'creative place making as an urban community' can also be transformed into a driving force to overcome the evils of gentrification. Moreover, as the process is carried out step by step, contemporary cultural practitioners can seek solidarity to assert their rights to the city in a far stronger way. All the discussions taking place throughout the work, including the two examples of Busan's Ttottattoga and Changchun's 'Mudan Street', are designed to support the above-mentioned argument. One thing not to be forgotten: "Towns tell us of the almost total decomposition of community, of the atomisation of society into 'private' individuals as a result of the activities and way of life of a bourgeoisie which still dares to claims that it represent 'the general interest'." as Lefebvre suggests.</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전국조 / 全國鳥 / Jeon, Guk-Jo				
	소 속	慶星大學校 韓國漢字研究所				
	Em@il	gukjojeon@daum.net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11.18	심 사 일	2020.11.28	게재확정일	2020.12.14